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 번역에 관한 제언 —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독특한 표현들을 중심으로 —

안창선*

1. 들어가는 글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을 위한 기호가 아니라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공유한 문화의 맥락과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체계이다. 바로 이것이 번역을 어렵게 한다. 왜냐하면 번역은 단순히 기호를 다른 기호로 변환하는 것 이상의 작업을 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바로 이 점이 번역할 때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향유하는 문화를 깊이 관찰하고 이해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성경을 현대인들의 언어로 번역하려는 시도는 다양한 국가, 교단, 단체 등에서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현대 한국에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이러한 작업이 가지는 의의는 더욱 크다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현대의 한국은 성경의 배경이 되는 시대 및 장소와는 매우 큰 거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성경 시대의 언어, 직업, 날씨, 땅의 특성, 가족관, 종교관, 사회 계층 등 그 무엇 하나 우리의 것과 유사한 것을 찾기 어렵다. 심지어 한 해를 시작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시점 등 시간을 인식하는 기준조차 다르다. 바로 이런 점이 현대인들의 성경 이해를 어렵게 한다.

현대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의 필요도가 높아지는 이러한 상황

* Boston University에서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한국성서대학교 성서학과 신약학 교수. changsan@bible.ac.kr. 본 논문은 2022년 4월 23일 안양제일교회에서 개최된 제113차 한국신약학회 정기학술대회 “성서번역의 이상과 현실: 『새한글성경』을 중심으로”에서 발표된 글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에서 이번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이하 『새한글』로 약기)의 출판은 더욱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특별히 금번 번역에서는 고대 문화를 드러내는 절기, 호칭, 그리고 시간의 표현들을 젊은 독자들이 알기 쉽도록 순우리말을 사용하여 가독성을 한층 높였다는 점에서 한글 성경 번역사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재까지 교회 안에서 전통적인 표현으로 자리 잡은 인명 그리고 지명은 기존의 음역을 존중하지만, 가능한 것들은 국립국어원의 외래어 표기법을 따름으로써, 익숙하고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를 반영하려고 시도했다는 것 또한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새한글』의 시도와 노력을 존중하고 감사하면서, 다만, 이 귀한 작업에 본 연구자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고민하며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런 목적에 따라 『새한글』 요한복음 가운데 등장하는 독특한 표현들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발전적 제안을 하고자 하였다. (1) 유대 민족 절기, ‘수전절’, (2) 예수의 발화, ‘여자여’, ‘나는-이다’, 그리고 ‘높임 표현의 변화’, (3) ‘고아’, (4)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 순서로 논하고자 한다.

2. 유대 민족 절기, ‘수전절’(τὰ ἑγκαίβια)

성경에 나타난 절기들은 고대 로마 또는 유대 사회의 문화를 가장 잘 보여 주는 것 중 하나이다. 성경의 절기들은 한 해의 기준이자 표준이었으며, 유대 민족, 집단, 또는 공동체의 민족적, 또한 종교적 정체성을 반영하는 중요한 행사였다. 절기는 단순히 해당 계절이나 축일을 함께 즐기는 개념을 넘어 과거의 특정한 인물 또는 사건을 기념하는 행위를 해마다 반복함으로써, 그 인물이나 사건을 통하여 받았던 감정, 물건, 권리 등이 다시 반복되기를 기대하는 공동체의 바람을 담고 있다.¹⁾ 또한 그 인물이나 사건이 자손 대대에 기억되길 기대하며 만들어졌다.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많은 절기의 이름들을 언급하고 있는 책으로서, 유월절, 초막절, 수전절 등이 나타난다. 『새한글』에서는 지금까지 출판된 한글 번역 성경들 가운데 최초로 유대인의 절기들 가운데 몇 가지를 한글로 풀어서 현대 독자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리스어 원문을 전혀 모르는 일반 독자들이라 할지라도 『새한글』을 통해 다소 낯설게 읽었던 절기들을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새한

1) D. Feeney, *Caesar's Calendar: Ancient Time and the Beginnings of Histor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7), 148-151.

글』 요한복음을 읽으며 가장 새롭게 보였던 이러한 절기 번역에 관해 살펴 보고자 한다.

구약성경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가톨릭의 정경인 마카베오서와 같은 외경에 익숙하지 않는 개신교회 독자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절기가 요한복음에서 소개된다. 바로 수전절(요 10:22, 『개역개정』)이다. 『새한글』에서는 수전절의 그리스 원어 ‘*τὰ ἐγκαίνια*’를 풀어서 표현, 번역하였다.

『새한글』에 나타난 절기의 이름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요한복음에 나타난 절기 이름의 번역 비교

절기	NTG ²⁸	성경 본문	『새한글』	『개역개정』	『공동번역』
수전절	<i>τὰ ἐγκαίνια</i>	10:22	성전다시 바친명절	수전절 (修殿節)	봉헌절 (奉獻節)
유월절	<i>τό πάσχα</i>	2:13, 23; 6:4; 11:55; 12:1; 13:1; 18:28, 39; 19:14	넘는명절	유월절 (逾越節)	과월절 (過越節)
초막절	<i>ἡ σκηνοπηγία</i>	7:2	초막명절	초막절 (草幕節)	초막절 (草幕節)

위의 절기 중 특히 수전절은 신약성경 가운데 요한복음에서만 소개되는 절기로 주전 164년 경 셀류시오드 왕조(Seleucid Dynasty)의 안티오쿠스 에 피파네스(Antiochus Epiphanes IV)가 행한 성전 모독에 맞선 마카베오 가문의 혁명이 성공한 이후, 부정해진 성전을 정화하고 그것을 다시 봉헌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다.

NTG ²⁸	Ἐγένετο τότε <u>τὰ ἐγκαίνια</u> ἐν τοῖς Ἱεροσολύμοις· χειμῶν ἦν
『개역개정』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현대인의 성경』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되었는데 때는 겨울이었다
『공동』	때는 겨울이었다. 예루살렘에서는 봉헌절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다
『새번역』	예루살렘은 성전 봉헌절이 되었는데, 때는 겨울이었다
『새한글』	그때에 예루살렘에서는 성전다시바친명절(수전절)을 지키고 있었다. 때는 겨울이었다

위의 수전절을 번역한 한글 번역 성경들을 보면 ‘τὰ ἐγκαίνια’의 번역이 크게 ‘봉헌절’과 ‘수전절’의 두 종류로 구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스어 원문으로는 재건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τὰ ἐγκαίνια’를 『개역개정』은 ‘수전절’로 번역하였다. 사용된 한자적 의미로 살펴보면, 닦을 수 또는 고칠 수(修), 대궐 전(殿), 마디 절(節), 즉 성전을 닦고 고쳤다, 혹은 성전을 정결하게 했다는 의미가 드러나는 번역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이 비해 『공동』은 ‘봉헌절’로 번역하였고, 사용된 한자로 볼 때, 바칠 봉(奉), 드릴 헌(獻), 마디 절(節)로 성전을 바친다는 의미로 번역을 한 것으로 보인다. 각각의 한글 번역 성경 번역자들이 수전절의 핵심을 성전을 정결케 하는 것, 혹은 성전을 봉헌하는 것으로 이해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 절기의 배경과 관련된 내용이 소개되는 마카베오상 4:36-59, 마카베오하 10:1-8, 그리고 요세푸스의 『유대고대사』 12. 316-325를 살펴보면, 이 절기의 의미를 조금 더 자세히 추적해 볼 수 있다. 그 가운데 수전절이 등장하기까지의 과정을 비교적 자세히 소개하는 마카베오상 4:36-59의 내용만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은, “이제 적을 다 무찔렀으니 올라가서 성소를 정화하여(καθαρίσαι) 다시 봉헌합시다(ἐγκαίνισαι).” 하고 말했다. … 한편 유다는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려 요새 안에 있는 적군을 공격하게 하고 자신은 성소를 정화하였다(καθαρίση). … 백사십팔년 기슬레우월 즉 구월 이십오일 이른 아침에 그들은 일찍 일어나서 율법대로 새로 만든 번제 제단에 희생제물을 바쳤다. 이방인들이 그 제단을 더럽혔던 바로 그 날과 그 때에 그들은 노래와 비파와 통소와 쟁과리로 연주를 하며 그 제단을 다시 바쳤다(ἐνεκαίνισθη).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τὰ ἐγκαίνια’ 절기는 성전의 정화 또는 성전의 봉헌들 중의 하나의 측면의 의미만을 지닌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안티오쿠스에 맞서 싸워 성전을 정화한 후 하나님께 봉헌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이 두 가지 요소는 나눌 수 없는 동전의 양면이라 할 수 있다.²⁾ 이 절기가 등장하는 요한복음 10:22-39에서 이 절기가 나타내는 예수의 정체성 또는 그의 사역과의 연결점 등의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이 절기 자체가 당시 사회에 지니는 의미는 성전의 정화와 다시 바쳐지는 것이었음은 충분히 짐작할

2) 리처드 보컴(R. Bauckham)은 ‘τὰ ἐγκαίνια’를 봉헌(dedication)의 의미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제단과 관련해서 다시 정화된 제단이 다시 개시(inauguration)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R. Bauckham, *The Testimony of the Beloved Disciple: Narrative, History, and Theology in the Gospel of John*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7), 258-259.

수 있다.

『새한글』의 번역에서 이 절기를 ‘성전다시바친명절(수전절)’로 풀어 설명한 것은 확실히 현대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 매우 신선한 시도임에 틀림이 없다. 다만, 다음의 점과 관련해서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우선, 『새한글』은 이 절기를 나타내는 ‘τὰ ἐγκαίνια’를 ‘수전절’과 ‘봉헌절’의 의미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현재 절기 이름을 풀어 쓴 표현인 ‘성전다시바친명절’은 ‘봉헌절’적 의미를 취한 것임에 반해, 괄호에서 다시 표기한 ‘수전절’은 앞서 풀어 설명한 의미와는 다른 의미를 표기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불필요한 혼선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자는 다음의 번역을 제안하고 싶다. (1안) 성전다시바친명절(봉헌절), (2안) 성전을정화한명절(수전절), (3안) 성전정화후다시바친명절(수헌절).

둘째, 『새한글』은 한자어를 사용하는 것과, 그 뜻을 풀어 표기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의미 전달을 더 효율적이고 풍성하게 할 수 있는지 고민한 것으로 보인다. 언어가 의사소통의 기호 체계가 된 것은 언어가 가지는 효율성 때문일 것이다. 특히 문자 언어는 매우 많은 정보를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수단이며, 동시에 오래 보존할 수 있는 수단이다. 문자 언어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명확하고 간결한 표현이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하지만, 이런 측면에서 ‘한자어’의 사용이 꼭 이해를 저해한다고 보기만도 어렵다. 왜냐하면 그 뜻을 풀어쓰면 당장 이해는 용이할 수 있으나, 글자 수가 늘어남에도 오히려 그 단어가 갖고 있던 함축적 의미를 모두 전달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기 때문이다. 한자어가 지니는 함축적인 의미 전달의 효과는 그 단어를 유지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는 것이다.³⁾ 아마도 이러한 문제로 인해 『새한글』은 모든 절기들을(이른테면 안식일, 초막절) 풀어서 번역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이 점이 다음 세 번째 제안을 가져온다.

셋째, 『새한글』은 요한복음 안에서 절기를 의미하는 단어 표현을 한자어 혹은 풀어서 표기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통일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 현재 『새한글』은 절기의 명칭을 표기함에 있어 한자어와 한글로 풀어서 표기하는 방식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가령 초막절은 ‘임시거처를짓는명절’ 등으로 풀어서 하지 않고 한자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이는 안식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안식일 역시 ‘일을멈추고쉬는날’ 등으로 풀어서 소개하지 않고 한자어 표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아마도 이해

3) 김주환, “『새한글성경』 신약성경에 관한 고찰”, 『신약연구』 20:4 (2021), 752.

하기 어려운 절기의 명칭만을 풀어서 표기한 것으로 독자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로 보인다. 그러나 한 텍스트 안에서 두 가지 표기 방식의 혼합된 사용 역시 불필요한 혼선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로 일관되게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싶다. 만약 혼용이 필요하다면, 어떤 기준에 의해 특정 한자어는 풀어 번역하였고, 또 다른 것은 한자어를 그대로 유지하였는지에 관한 설명을 함으로써 독자들에게 더 큰 이해를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3. 예수의 발화

3.1. 여인들을 향한 예수의 호칭, ‘여자여’(γύναι)

존대법은 한국어의 중요한 언어적인 특징 중 하나로 그리스어를 번역할 때 가장 크게 부딪치는 문제 중 하나이다.⁴⁾ 이번 『새한글』 요한복음의 예수의 대화를 번역함에 있어서 높임 표현들을 사용한 것이 매우 두드러진다. 특히 그가 대화하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높임의 격을 달리한 부분은 매우 흥미롭다. 이러한 『새한글』 번역 방향은 번역자의 소개에서도 분명하게 언급이 된다.

대화문은 상황에 맞는 입말로 옮기며, 한국어 어법에 맞는 높임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서도 대중에게 하시는 말씀은 격식체인 하십시오체를, 열두 제자와 같이 친밀한 사이에 하시는 말씀은 해오체와 친밀어를, 적대자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오체를 사용하였습니다.⁵⁾

위의 번역 원칙에 따라, 『새한글』 요한복음은 예수의 대화를 대화 상대와 상황을 고려하여 번역함으로써 읽는 독자에게 생동감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새한글』의 시도는 매우 적절하고 반갑기까지 하다. 그동안의 우리 말 성경은 주로 원어를 다른 나라의 언어로 1차 번역된 것을 다시 번역하는 형태를 취해왔다. 이로 인해 우리말이 가지는 어감이나 어법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새한글』의 이런 시도는 어

4) 조지훈, “존대법 번역과 성경 번역 접근법”, 『성경원문연구』 25 (2009), 127-148.

5) 김창락,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신약성서의 번역 특징을 중심으로”, 대한성서공회홈페이지, https://www.bskorea.or.kr/bbs/board.php?bo_table=sachan&wr_id=7 (2022. 04. 10.).

쩌면 다소 늦은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번역이 원어가 가지는 본연의 의도와 의미를 가리게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고민이 조금 더 필요해 보이는 표현이 바로 예수가 사용하는 호칭, ‘여자여’(γύναι)와 관련된 번역이다.

그동안 우리말 성경 번역에서 ‘γύναι’의 번역으로 주로 사용한 ‘여자여’라는 표현이 주는 다소 상대방을 하대하는 듯한 인상으로 인해, 이미 국내 학자들 사이에서도 예수가 자신의 어머니를 향하여 한 ‘γύναι’를 ‘여자여’로 번역하는 것의 적절성 여부가 논의의 주제가 되기도 했다.⁶⁾ 요한복음에서 여성들을 향해 부른 호칭 ‘여자여’(γύναι)는 예수의 대화 가운데 5차례, 천사와 막달라 마리아의 대화 가운데 1차례 총 6차례 나타난다.⁷⁾ 예수의 대화 가운데에서는 자신의 어머니를 향하여 2회(요 2:4, 19:26), 다른 여성들을 향하여 3회(요 4:21, 8:10, 20:15) 사용이 된다는 점에서, 요한복음에서 이 표현은 예수에 의해 압도적으로 사용된다.⁸⁾ 예수가 사용한 표현들만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2> 요한복음에서 예수가 사용한 ‘γύναι’의 번역 비교

대화상대		본문	NTG ²⁸	『새한글』	『개역개정』	『공동』
어머니 마리아		2:4	γύναι	어머니	여자여	어머니
		19:26	γύναι	어머니	여자여	어머니
다른 여성들	사마리아 여인	4:21	γύναι	자매님	여자여	생각했음
	간음하다 잡힌 여인	8:10	γύναι	자매님	여자여	생각했음
	막달라 마리아	20:15	γύναι	자매님	여자여	생각했음

6) 배재욱, “요한복음에 나오는 γύναι에 대한 소고 — 예수는 자기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불렀을까?”, 『신약논단』 9:3 (2002), 779-786; 거트 M. 네퍼, “요한복음 2:4의 γύναι 용법에 대한 유진 나이다의 견해”, 김형동 역, 『성경원문연구』 39 (2016), 434-447; 권해생, “예수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요 19:25-27)”, 『신약연구』 17:4 (2018), 526-555.

7) 요한복음에서 ‘여자여’라는 표현은 총 6회 등장하며, 그 가운데 예수의 입에서 5회(2:4; 4:21; 8:10; 19:26; 20:13), 천사의 입에서 1회(20:15) 사용된다.

8) ‘γύναι’는 마 15:28, 눅 13:12, 그리고 눅 22:57에서 3번밖에 등장하지 않으며, 이 가운데 눅 22:57은 예수가 아닌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한 말이다. ‘γύναι’는 요한복음에서만 예수에게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기에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권해생은 이를 상대방과의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표현으로 간주한다. 권해생, 『요한복음』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출판국, 2021), 126.

3.1.1. 어머니를 향해 사용한 ‘여자여’(γύναι)

요한복음에서 예수는 어머니를 부르는 호칭으로 ‘γύναι’를 자신의 첫 번째 사역이었던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에서와 마지막 사역이었던 십자가상에서 두 번 사용한다.

첫 번째, 가나 혼인 잔치(2:4)

NTG²⁸ [καί] λέγει αὐτῇ ὁ Ἰησοῦς Τί ἐμοὶ καὶ σοί, γύναι; οὐπω ἤκει ἡ ὥρα μου.

『새한글』 그러자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말씀하십니다. “저한테 왜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어머니? 아직 저의 시간이 오지 않았습시다

『개역개정』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두 번째, 십자가상(19:26-27)

NTG²⁸ Ἰησοῦς οὖν ἰδὼν τὴν μητέρα καὶ τὸν μαθητὴν παρεστῶτα ὄν ἡγάπα λέγει τῇ μητρὶ Γύναι, ἴδε ὁ υἱός σου: εἶτα λέγει τῷ μαθητῇ Ἴδε ἡ μήτηρ σου, καὶ ἀπ’ ἐκείνης τῆς ὥρας ἔλαβεν ὁ μαθητὴς αὐτὴν εἰς τὰ ἴδια.

『새한글』 이제 예수님이 어머니와 또 자신이 사랑하신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머니, 보십시오.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그대의 어머니입니다.” 바로 그 시간부터 그 제자가 예수의 어머니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갔다.

『개역개정』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 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새한글』에서 ‘어머니’로 번역한 것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그리스어 ‘γύναι’는 ‘여자’, 또는 ‘아내’의 의미를 갖는다. 물론 예수가 자신의 어머니를 향하여 ‘여자여’라고 부른 것이 현대 독자들에게는 다소 무례하게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해석하는 바와 같이, 이

구절은 예수가 자신의 어머니를 무시해서 한 발언이기보다 자신과 어머니의 사이에 간격이 존재하고 있음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문맥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⁹⁾ 제자들과 함께 한 첫 번째 공식 석상이 가나의 결혼 잔치에서 예수는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했다고 요한은 설명한다(2:11). 요한의 예수는 자신의 때를 아는 사람이다(13:1, 『새한글』, 예수는 자신의 때가 와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한테로 옮겨 가야 하는 것을 아셨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예수는 마리아의 간청 때문에 혼인 잔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일해야 할 ‘때’를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요한복음 2:4의 번역과 관련하여 네퍼(G. M. Knepper)는 ‘γύναι’는 ‘Τί ἐμοὶ καὶ σοί’(『새한글』, 저한테 왜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와 일관된 논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거리감을 두는 번역을 해야 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γύναι’가 ‘어머니’를 뜻하는 용어로 번역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확히 본문이 그렇게 대화하는 것을 명백히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권한다.¹⁰⁾

‘γύναι’가 갖는 의미는 예수가 이 단어를 사용한 두 번째 상황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예수는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호흡을 내쉬며 자신의 어머니를 향하여 ‘γύναι’라고 부른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가 26절에서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γύναι’로 부르는 반면, 27절에서 자신의 제자에게는 마리아를 ‘μήτηρ’로 소개함으로써 분명하게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μήτηρ’는 언제나 ‘어머니’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로 ‘γύναι’와 구별된다. 다시 말해 예수는 자신의 어머니를 두고 명확하게 다른 두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의미와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요한은 의도적으로 다른 단어를 선택하여, 예수와 마리아의 관계 변화를 드러낸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여자’라고 부르며 거리를 두는 반면, 제자에게는 마리아를 ‘네 어머니’라고 부름으로써(19:27),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와 자신의 어머니 사이를 새로운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로 연결시킨다. 즉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¹¹⁾ 이를 통해 ‘혈통을 따라서나 몸의 뜻을 따라서나 남자의 뜻을 따라서가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새로운 공동체를 소

9) D. A. 카슨, 『요한복음』, 박문재 역 (서울: 솔로몬, 2017), 301; 조석민, 『이해와 설교를 위한 요한복음』 (고양: 이레서원, 2019), 86; G. R. O'Day, *The Gospel of John* (Nashville: Abingdon Press, 1995), 536.

10) 거트 M. 네퍼, “요한복음 2:4의 γύναι 용법에 대한 유진 나이디의 견해”, 445.

11) G. R. O'Day, *The Gospel of John*, 832.

개한다.¹²⁾

결과적으로 예수가 ‘여자여’라고 부르는 것은 자신의 어머니를 낮추거나 비하하여 부르는 것이 아니며 자신의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해서도 아니다. 예수는 의도적인 거리두기를 하고 있으며, 달라진 자신과 어머니, 그리고 제자와 어머니의 관계 변화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새한글』은 이 두 단어(‘γύναι’와 ‘μήτηρ’)를 모두 동일하게 ‘어머니’로 번역함으로써 ‘γύναι’의 문맥상의 역할을 다소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또한 ‘μήτηρ’와의 차이를 희미하게 만들었다는 점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한 예수와 베드로와의 대화에서 『개역개정』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21:15, 16, 17, ‘ἀγαπᾷς με’)고 묻는 예수의 질문과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21:15, 16, 17, ‘φιλῶ σε’)고 대답하는 베드로의 대화를 동일한 ‘사랑하다’는 말로 번역했다. 하지만 『새한글』은 예수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하고 베드로는 ‘제가 주님을 좋아한다’고 서로의 단어가 달리 사용되고 있음을 번역으로 애써 드러내고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요한복음 19:26-27에서 사용되는 ‘여자’(‘γύναι’)와 ‘어머니’(‘μήτηρ’)의 저자의 구분을 하나의 한글 번역으로 묶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다소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현대 독자를 고려하는 것의 중요성을 간과하지는 것이 아니다. 다만, 현대 독자들의 상황을 고려한 번역과 원문의 분석 결과가 일치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임¹³⁾은 고민해 볼 대목이다.

3.1.2. 여인들을 향해 사용한 ‘여자여’(γύναι)

‘γύναι’와 관련해서, 예수는 어머니가 아닌 여성들을 향해서도 이 표현을 사용한다. 첫째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에서(4:21), 두 번째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을 향해서(8:10),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의 시신을 찾아 장사하려고 온 막달라 마리아를 향해서이다(20:15). 앞선 논의의 연속선에서 다소 거리감과 중립적 위치를 드러내는 ‘γύναι’를 『새한글』에서 ‘자매님’이란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번역한다.

예수가 세 여인을 향해 ‘γύναι’라고 부른 것은 의도적 거리두기를 하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향해, 예수는 ‘γύναι’, 즉 ‘여자여’라고 부름으로써 긍정도 부정도 아닌, 그녀를 향한 최종적인 판단과 관련하여 예비적이고 중립적 단계를 드러낸다. 바로 직전에 간음하여 죽음의

12) 권해생, “예수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요 19:25-27)”, 543-548.

13) 조지윤, “존대법 번역과 성경 번역 접근법”, 142-144.

긴장 관계에 있던 한 여성을 향해 예수가 처음 내뱉은 말로 ‘자매님’(8:10)이라는 단어는 현대적 맥락으로 이해해도 쉽게 다가오지 않는다. ‘γύναι’란 호칭 뒤에 이어진 예수의 말 “나 자신도 … 죄 있다고 판가름하지 않습니다. 가 보세요”(8:11)의 자유 선언으로 비로소 이 여인은 ‘남자와 간음하다 붙잡힌 여자’(8:3)에서 그저 한 ‘여자’(8:10)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 있다고 판결받지 않은’ 자유인(8:11)으로 발전해 간다. 이 점층적인 구조의 중간 단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γύναι’는 ‘자매님’보다 ‘여자’가 더 자연스러워 보인다. 성경의 모든 문화적 배경과 문맥, 의도를 담으면서 동시 현재 독자들에게도 친숙하고 자연스러운 언어로 바꾸는 것은 분명 큰 도전이다. 그러나 동시에 포기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3.2. 예수의 화법: ‘나는 -이다’(‘ἐγώ εἰμι’)

『새한글』은 요한복음의 독특한 표현을 그대로 살려서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진실로 진실로”(『개역개정』, ‘ἀμὴν ἀμὴν’ 총 25회 사용)라는 표현이다. 『새한글』에서는 이 표현을 기존의 『개역개정』에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풀어서 번역을 하는 것과 달리 모두 ‘아멘 아멘’으로 음역하여 소개하고 있어 원어적 어감과 이 단어의 독특함이 더 잘 살아난다.

또한 예수가 다양한 상대를 가리키는 ‘ὁμίην’ 역시, 동일한 단어임에도 대상에 따라 달리 번역하여, 현재 예수가 누구를 향해 말하고 있는지가 더 잘 드러나게 했다. 『새한글』은 ‘ὁμίην’을 제자들에게 말할 때에는 “아멘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1:51; 12:24; 13:16, 20, 21; 14:12; 16:20, 23)로, 논쟁의 상대인 유대인들에게 말할 때에는 “아멘 아멘 당신들에게 말합니다”(5:24, 25; 8:34, 51)로, 그리고 일반 대중을 향하여는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6:26, 32, 47, 53)로 구분하여 독자들은 대화 분위기를 더 잘 감지할 수 있게 하였다. 『새한글』의 이러한 세심한 배려로, 예수의 발화 “아멘 아멘 당신들에게 말합니다”로 시작되는 10:1은 예수의 대화 상대가 제자 또는 일반 대중이 아닌 유대인임을 알 수 있게 한 것이다.

또 하나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의 독특한 표현과 관련하여 『새한글』의 또 다른 흥미로운 번역 중 하나가 바로 ‘ἐγώ εἰμι’이다. 『새한글』의 ‘ἐγώ εἰμι’의 번역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3> 요한복음에 나타난 ‘ἐγώ εἰμι’의 번역 비교

본문	NTG ²⁸	『새한글』	『개역개정』
4:26	Ἐγώ εἰμι, ὁ λαλῶν σοι.	바로 내가 그입니다. 그대에게 말을 건네고 있는 내가요.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6:20	Ἐγώ εἰμι, μὴ φοβεῖσθε.	나예요, 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6:35	Ἐγώ εἰμι ὁ ἄρτος τῆς ζωῆς	나야말로 생명의 빵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6:41	Ἐγώ εἰμι ὁ ἄρτος …	나야말로 … 빵입니다.	자기가 … 떡이라 하시므로
6:48	… ἐγώ εἰμι ὁ ἄρτος τῆς ζωῆς	나야말로 생명의 빵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6:51	… ἐγώ εἰμι ὁ ἄρτος …	나야말로 … 빵입니다.	나는 … 떡이니
8:12	Ἐγώ εἰμι τὸ φῶς τοῦ κόσμου …	나야말로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8:18	… ἐγώ εἰμι ὁ μαρτυρῶν περὶ ἐμαυτοῦ	나 자신이 스스로에 대해 증언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8:24	… ἐὰν γὰρ μὴ πιστεύσητε ὅτι ἐγώ εἰμι …	바로 내가 나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8:28	… γνώσεσθε ὅτι ἐγώ εἰμι …	바로 내가 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인 줄을 알고
8:58	… πρὶν Ἀβραάμ γενέσθαι ἐγώ εἰμί.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나입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10:7	… ἐγώ εἰμι ἡ θύρα τῶν προβάτων.	나야말로 양들의 문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10:9	ἐγώ εἰμι ἡ θύρα.	나야말로 문입니다.	내가 문이니 …
10:11	ἐγώ εἰμι ὁ ποιμὴν ὁ καλός.	나야말로 좋은 목자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본문	NTG ²⁸	『새한글』	『개역개정』
10:14	ἐγώ εἰμι ὁ ποιμὴν ὁ καλός ...	나야말로 좋은 목자여서 ...	나는 선한 목자라
11:25	Ἐγώ εἰμι ἡ ἀνάστασις	나야말로 부활이요 ...	나는 부활이요
13:19	... πιστεύετε ὅταν γένηται ὅτι ἐγώ εἰμι.	바로 내가 나라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겁니다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14:6	Ἐγώ εἰμι ἡ ὁδός ...	나야말로 그 길이고 ...	내가 곧 길이요
15:1	Ἐγώ εἰμι ἡ ἄμπελος ἡ ἀληθινή ...	나야말로 참 포도나무이고 ...	나는 참 포도나무요
15:5	ἐγώ εἰμι ἡ ἄμπελος ...	나야말로 포도나무 ... 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18:5	... Ἐγώ εἰμι.	바로 나요	내가 그니라
18:6	... Ἐγώ εἰμι ...	바로 나요	내가 그니라
18:8	Εἶπον ὑμῖν ὅτι ἐγώ εἰμι	바로 나라고 당신들에게 말했소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ἐγώ εἰμι’는 요한복음의 예수(Johannine Jesus)의 대화체에 나타나는 표현으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할 때 총 23회나 등장한다. 특히 ‘ἐγώ εἰμι’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는 장면을 연상케 하는 것으로(출 3:14), 예수의 신적인 정체성을 함축하는 표현으로 사용한 것으로 학자들에게 이해되어 왔다.

전체적으로 『새한글』은 ‘ἐγώ εἰμι’를 주어-술어의 관계 가운데 주로 ‘나야말로 -입니다’로 번역하였다. ‘나야말로’라고 표현함으로써 예수가 자신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더 잘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18장에서 예수가 자신을 체포하려는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드러낼 때(요 18:5, 6, 8), 『개역개정』이 예수가 자신을 3인칭으로 가리키는 방식으로 번역을 한 반면, 『새한글』은 직접 인용의 형식을 취함으로써 독자들이 본문의 상황을 더욱 생생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주목할 만한 변화라 할 수 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새한글』 요한복음 8:58의 번역,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바로 내가 나입니다”이다. 8:56에서 예수는 “아브라함은 나의 때 불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격분한 유대인들은 예수를 향해 오십도 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말하는

지 따져 묻는다. 이때 예수는 이에 대한 대답으로 자신이 아브라함보다 더 오래전부터 있었던 존재라고 말한다. 이때 사용된 ‘ἐγώ εἰμι’는 자신의 선재성을 주장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¹⁴⁾ 이러한 배경 가운데 해당 본문에서 사용된 ‘ἐγώ εἰμι’는 ‘나는 -이다’의 성질을 특정하는 의미보다는 ‘나는 있었다’는 의미, 즉 존재했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문맥의 흐름을 살펴볼 때, 해당 본문의 해석은 『개역개정』의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나, 『공동』의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정도가 자연스러워 보인다.

이과 같은 맥락에서, 『새한글』 요한복음 8:28의 “당신들이 인자를 높이 들 때, 그때에 당신들은 내가 나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라는 번역 역시 다소 부자연스러워 보인다. 이와 달리 『개역개정』은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요한복음 8:28은 예수가 자신을 ‘인자’에 대입시켜, 당신이 바로 그 ‘인자’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다. 다시 말해 내(예수)가 그(인자)임을 강조하시는 것이다. 이런 흐름에서 『새한글』의 “나는 나”라는 번역은 이러한 다소 의미의 혼란을 줄 수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다소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발화의 독특성과 발화 상황을 강조하는 번역을 한 『새한글』의 시도는 신선하고 매우 긍정적으로 보인다.

3.3. 예수의 대화체에서 높임 표현의 변화

앞서 『새한글』은 같은 단어라 할지라도 대화 대상에 따라 다르게 번역하기도 했음을 간략하게 언급했다. 이와 유사하게 『새한글』은 특정 사건을 기점으로 변화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같은 단어라도 번역을 달리하고 있다. 특히 공관복음에서 예수의 부활 이후 예수의 대화체가 ‘하십시오체’ 혹은 ‘하오체’에서 ‘해라체’로 변화된다. 『새한글』 번역팀은 “여기서 갑자기 마침표가 바뀐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이전과 이후의 문체를 달리 번역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는 예수님의 주님 되심이 공개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성육신하신 분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으로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대화의 상황이 바뀌었음을 고려하여 번역했습니다.”고

14) D. A. 카슨, 『요한복음』, 656; 조석민, 『이해와 설교를 위한 요한복음』, 264; 권해생, 『요한복음』, 317.

밝히고 있다.¹⁵⁾ 이를 통해 화자, 즉 예수의 ‘부활’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다.

『새한글』의 이러한 새로운 시도는 환영할 만하다. 이런 번역을 통해 현대 독자들은 특정 사건으로 인한 변화를 더욱 분명하게 느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같은 선상에서 『새한글』 요한복음도 예수의 부활을 기점으로 예수의 발화의 높임법을 달리하고 있다. 공관복음과 같은 이유일 것이다.

<표 4> 『새한글』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의 발화 중 높임 표현(중결 표현)의 변화

본문	해요체, 하십시오체
1:1 -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랑이는 물 위를 걸으시면서, “나예요 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새한글』, 6:20 ▪ 십자가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하시며, “보세요, 그대의 어머니입니다” 『새한글』, 19:27 ▪ 십자가에서의 마지막 외침, “끝까지 다 이루어졌습니다” 『새한글』, 19:30 ▪ 부활하신 이후 마리아를 향해, “자매님, 왜 울고 있나요” 『새한글』, 20:15



본문	하라체
20:16 - 21: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활하신 이후 당신을 바라보는 마리아를 향해, “마리아야 … 나를 건드리지 마라” 『새한글』, 20:16-17

『새한글』 요한복음은 1:1-20:15까지 예수의 대화 장면에서 예수의 말을 ‘해요체’나 ‘하십시오체’로 표현했다. 이후 20:16부터 ‘하라체’로 변경한다. 이는 앞서 언급된 번역자의 신학적 견해를 반영한 것으로, 부활이라는 특정 사건을 예수가 자신의 메시아 됨을 보여 주는 가장 결정적인 사역으로 이해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러한 시도는 부활 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예수의 변화를 분명하고 극적으로 드러내 주는 새로운 시도이다.

다만, 요한복음이 갖는 차별성이 고민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활을 기점으로 예수의 주 되심과 영광을 드러내는 공관복음과 달리, 요한복음을 그 시작에서 예수의 주 되심과 영광을 나타내고 선포한다. 또한 부활 사건 이전에 이미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음을 분명히 한다.

15) 이두희, “마가복음 번역 해설”, 이두희, 박동현, 민현식,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 번역해설집』 (서울: 대한성서공회, 2021[전자매체본, 2021]), 66, https://www.bskorea.or.kr/bbs/board.php?bo_table=saeahan&wr_id=5 (2022. 4. 10.).

『새한글』

(1:1)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
이셨다, 그 말씀은.

(1:14)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니 아버지에게서 나신 하나뿐인
아들의 영광이었다.

(2:11) 예수님이 갈릴래아 가나에서 행하여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
다. 그래서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믿게 되었다.

요한복음은 예수가 고난받고 부활하는 사건을 그의 주 되심을 드러내고
영광 받으시는 최초이자 최종적 사건으로 묘사하기보다는, 이 땅에서 이미
영광을 받으시고 드러낸 영광은 부활 이후 완전해지는 것으로 묘사한다.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부활 사건을 예수의 주 되심과 영광 받으시는 기
점으로 보는 공관복음과 달리 그 시작부터 예수의 주 되심을 선포하는 요한
복음의 독특성을 고려할 때, 부활을 기점으로 대화체의 변화에 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보컴(R. J. Bauckham)은 공관복음서를 기록한 ‘초기 그리스
도교 저자들’이 인식한, ‘죽음-부활’ 내지는 ‘죽음-승귀’의 이중 구조에 기반
하여 요한의 ‘죽음-부활-승귀’의 세 단계를 드러내고 시도하는 것이 적절하
지 않다고 지적한다.¹⁶⁾ 공관복음의 눈으로 세워진 번역의 기준으로 요한복
음을 번역하지는 않았는지 고민해 볼 대목이다. 예수의 발화의 높임 표현과
그 변화로 인해 혹 예수의 신적 정체성이 약화되지는 않는지, 또한 요한이 강
조하는 독특성이 가리어지지는 않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4. ‘고아’(ὄρφανός)

신약성경에서는 요한복음과 야고보서에서만 등장하는 이 단어는 요한
복음 13-14장에서 예수는 자신이 떠날 때가 되었음을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언급하는 배경 가운데 등장한다. 그리고 예수는 자신이 아버지께로 떠나야
한다는 말을 듣고 영문을 알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아버지 집으로 거할 곳을 예비하러 떠나는 것(요 14:1-2)임과 함께 다시 그
들을 데리러 올 것임을 말한다(요 14:3).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게 될 보혜
사 즉 성령을 아버지께서 보내실 것을 말하는 대화의 과정에서 예수는 제
자들을 ‘ὄρφανός’처럼 남겨 두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다. 이 단어가 등장하

16) 리처드 보컴, 『요한복음 새롭게 보기』, 문우일 역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6), 127-129.

는 요한복음 14:18의 내용을 『새한글』과 『개역개정』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NTG ²⁸	Οὐκ ἀφήσω ὑμᾶς ὀρφανούς, ἔρχομαι πρὸς ὑμᾶς.
『새한글』	내가 그대들을 <u>부모 없는 아이들로</u>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그대들한테로 올 겁니다
『개역개정』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Geneva Bible	I will not leave you fatherless: but I will come to you

예수는 자신이 아버지께 보혜사를 청할 것과 당신이 제자들에게 다시 올 것이요, 영원히 그들과 함께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한다. 예수의 부재의 시간에도 세상은 알아보지 못하지만 보혜사는 그들과 함께할 것이다. 그들은 어느 순간에도 홀로 있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예수는 ‘ὀρφανούς’를 사용하여 절대 제자들을 버려두지 않을 것임을 강조한다.

‘ὀρφανούς’라는 단어를 『개역개정』에서는 ‘고아’로 번역하였다. 그리고 『새한글』에서는 ‘고아’를 풀이하여, ‘부모 없는 아이들’로 번역하였다. 기본적으로 우리말 한글 사전에서는 “고아: 부모를 여의거나 부모에게 버림 받아 몸 붙일 곳이 없는 아이”로 설명한다.¹⁷⁾ 하지만 ‘ὀρφανούς’라는 단어는 고대 배경 가운데 이해할 때, 현대인들의 생각처럼 부모가 없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이 단어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 중 한쪽이 없는 아이를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했다.¹⁸⁾

당신은 나의 충직한 남편입니다. ... 여기 성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 당신의 아이가 고아가(ὀρφανικός) 되지 않도록 그리고 당신의 아내가 과부가 되지 않게 하세요 (Homer, *Iliad* 6. 430-432)

위의 언급된 고대 그리스 서사시 일리아드에서 전투에 나서려는 헥터

17)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2022. 4.7.).

18) 조석민, 『이해와 설교를 위한 요한복음』, 380; H. G. Liddell and R. Scotts, eds., *An Intermediate Greek-English Lexicon* (Oxford: Clarendon Press, 1889), 571. ὀρφανούς는 요 14:18과 약 1:27에서만 사용된다. 이 단어가 사용된 본문만으로 ὀρφανούς가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것인지 상황을 추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ὀρφανούς가 아버지 없는 아이들 또는 부모가 모두 없는 상태이든 상관없이 약자로서 교회가 돌봐야 하는 대상으로 본 것은 분명해 보인다(1 Clement 8:4, “κρίνατε ὀρφανῶ,” Barn 20:2).

(Hector)를 향해 그의 아내가 하는 말로, 남편이 죽으면 그의 아이는 ‘고아’가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서 볼 수 있듯이, 남자가 죽는 것만으로 자녀는 ‘고아’(ὄρφανός)라고 불릴 수 있었으며, 이것은 당시에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었다.¹⁹⁾

이러한 ὄρφανός의 당시 사용 용례와 의미와 더불어 요한복음도 ὄρφανός를 부모 중 한쪽, 특별히 ‘아버지’의 부재를 강조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요한복음 13:33에서 예수는 제자들을 향하여 ‘자녀들’이라고 부름으로써, 자신을 자녀들에게 교훈하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묘사한다. 그리고 이어 ὄρφανός가 사용되는 14장은 제자들을 향한 예수의 약속, ‘내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겠다는 것으로 시작한다(14:2). 요한복음 13-14장의 예수와 제자, 그리고 빌립의 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5> 요한복음 13-14장의 전개

본문	내용
13:33	예수는 제자들을 ‘자녀’ τέκνία 라고 부른다.
14:2	예수는 제자들에게 그들을 ‘내 아버지 집’(τῆς οἰκίας τοῦ πατρός μου)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한다.
14:6	예수는 자신을 통해서라야 ‘아버지(πατήρ)’께 올 수 있다고 말한다.
14:8	빌립은 그렇다면 ‘아버지(πατήρ)’를 보여 달라고 요구한다.
4:16	예수는 제자들에게 그들과 영원히 함께 있을 보혜사를 ‘아버지(πατήρ)’께 구할 것이며, 그가 반드시 보낼 것이라고 말한다.
14:18	예수가 제자들에게 그들을 ‘ὄρφανός’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 말한다.
14:21	예수는 그를 사랑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πατήρ)’께도 사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요한복음은 ὄρφανός를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없는 상태, 또한 ‘아버지’께 가지 못하며, ‘아버지’께 사랑받지 못하는 상태의 결과로 말한다. 즉, 예수의 부재 그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아버지 없는 (fatherless) ὄρφανός 상태에 놓이는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말하고 있으며, 바로 이러한 상태에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²⁰⁾

19) M. Sigismund, ““Without Father, without mother, without genealogy”: fatherless in the Old and New Testaments”, S. R. Hübner, and D. M. Ratzan, eds., *Growing Up Fatherless in Antiqui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98.

20) D. A. 카슨, 『요한복음』, 928-29; 조석민, 『이해와 설교를 위한 요한복음』, 380.

무엇보다도 요한복음은 아들-아버지의 관계를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압도적으로 강조한다. 특히 ‘ὄρφανούς’가 사용되는 14장에서 예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무려 23회나 폭발적으로 소개한다. 그리고 그의 집을 향해 제자들의 거할 곳을 마련하기 위해 떠날 것을 말하면서, 자신을 아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며(14:7), 자신 역시 스스로를 위한 일이 아닌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음을 말한다(14:10).

이러한 배경 가운데 등장하는 요한복음 14:18의 ‘ὄρφανούς’는 아버지 없는 아이가 당시의 ‘고아’의 개념 범주 안에 있다는 점과 또한 요한복음의 문맥상 14:1-2부터 예수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단어는 현대적 관점에서 ‘부모가 없는 아이’라기 보다는 ‘아버지 없는 아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욱 자연스러울 수도 있다. 고아를 ‘부모가 없는 아이’로 이해하는 것은 다소 현대적인 이해일 수 있으며, 이런 현대적 관점은 자칫 본연의 의미를 제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버지’와의 단절의 의미로 보는 것이, 요한복음이 전체적으로 강조하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더 잘 드러내며, 앞서 언급된 ‘아버지의 집’과의 연관성에 있어서도 일관성을 갖게 될 것이라 생각된다.

5. 시간을 표현하는 단어

고대에는 현대처럼 시간을 인식하고 구별하는 공식적인 체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AD/BC와 와 같은 통용되는 시간의 축(temporal axis)이 없었으므로, 고대의 저자들은 독자들이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사건, 인물들의 탄생과 죽음을 시간의 축으로 사용하곤 했다.²¹⁾ 따라서 시간을 기록하는 방식은 저자가 이 인물 또는 사건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중요한 표지가 된다.

공관복음에서 소개된 예수의 삶의 순서와 비교해 보면, 요한복음은 상당한 차이를 나타낸다. 공관복음에서 등장하는 사건들 가운데 요한복음에는 없는 것들이 있고, 공관복음에 등장하는 것과 같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 사건의 위치 또는 기술 방식에서도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 요한은 자신만의 시간의 틀(temporal frames)로 예수의 삶을 구성해 나간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갖는 의미는 공관복음의 것과 다른 점이 있을 수 있다.

21) D. Feeney, *Caesar's Calendar*, 13-16.

『새한글』은 기본적으로 요한복음이 언급한 시간(『개역개정』 4:6, ‘여섯 시’, 『개역개정』 19:14, ‘제육시’)을 유대인의 시간 방식으로 이해하여 ‘낮 12시’로 번역한다.²²⁾ 이와 같은 번역 방식은 정말 놀라운 도전이다. 또한 『새한글』은 시간 단위뿐만 아니라, 무게와 도량형(『새한글』 19:39, ‘물약과 알로에 섞은 것을 33킬로그램쯤’)들도 현대 단위로 번역함으로써 현대 독자들에게 큰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번역으로 인해 현대 독자들은 성경을 읽는 중간 중간 단위를 별도로 변환하지 않아도 되며, 본문을 읽는 순간 그 양과 정도를 바로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고대의 단위를 현대 단위로 정확하게 환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고대 단위의 현대 단위화는 정확한 수치를 필요로 하는 연구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경 이해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다만, 성경의 시간, 특별히 요한복음의 시간 표현 방식의 이해에 관해서는 조금 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요한복음은 로마-유대의 복합적 문화 체계 안에서 자신만의 시간 체계로 예수의 삶을 소개한다. 이런 이유로 일부 사람들은 요한복음을 심지어 시간적으로 무작위적인 책이라고까지 불리기도 했던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요한복음은 사건의 기술에 앞서 시간의 지표(temporal markers)를 나타내기를 즐겨하는데, 이때 유대 전통적 기준과 로마적 표현으로 보이는 기준을 함께 사용한다. 가령, 요한복음은 유대의 절기(13:1, 유월절; 7:2, 초막절)를 사건을 소개하거나 장면이 전환되는 중요한 시간의 지표로 사용한다. 반면 로마의 시간 체계로 보이는 표현이 사용되기도 한다.

이런 맥락에서 요한복음이 나타내고 있는 ‘제육시’(『개역개정』 19:14) 등이 어느 민족 혹은 문화의 시간 체계와 기준을 따른 것인지는 여전히 논쟁 중이다. 일부는 ‘제육시’를 유대인의 시간으로 보는 반면,²³⁾ 또 다른 학자들은 로마의 체계를 따른 것으로 주장하기도 한다.²⁴⁾ 영어 번역 성경의 경우에도 NRSV, NLT에서는 유대의 시간 체계를 따라 ‘정오’(noon, noontime)로 번역했지만, 다른 많은 성경(KJV, NIV, RSV)은 ‘제육시’(the sixth hour)로

22) 안드레아스 퀴스텐베르거, 『요한복음』, 신지철, 전광규 역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7), 210, 676; 이에 대해 권해생과 조석민은 이 시간은 유대인의 시간 법에 따른 것이 아니라, 로마식 시간 즉 오후 6시라고 주장한다. 조석민, 『이해와 설교를 위한 요한복음』, 126-127; 권해생, 『요한복음』, 169.

23) D. A. 카슨, 『요한복음』, 389; M. M. Thompson, *John*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15), 96.

24) R. A. Culpepper, *The Gospel and Letters of John* (Nashville: Abingdon Press, 1998), 139; F. J. Moloney, *The Gospel of John* (Minnesota: The Liturgical Press, 1998), 121; 조석민, 『이해와 설교를 위한 요한복음』, 126-27; 권해생, 『요한복음』, 169.

표현함으로써 중립적인 번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요한복음의 시간을 유대 방식으로 이해한 『새한글』의 번역은 자칫 독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고대의 단위를 현대의 단위로 변환하는 노력은 계속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분명 현대 독자의 성경 이해를 돕는 막강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에 관한 국내의 연구와 논의 및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6. 나가는 글

‘번역은 반역’이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어렵다는 뜻일 것이다. 특별히 수 천 년 전의 문화를 현대인들의 문화에 맞게 번역해 내는 일은 거의 새로운 창조에 가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원문에서 전달하는 본래의 의미와 어감을 모두 완전히 번역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측면에서 『새한글』 번역에도 마치 외줄타기처럼 성경 시대 문화 안에 있는 표현과, 현대 시각 및 인식으로 번역된 표현 사이에서 그 정도와 범위가 위태한 긴장 관계를 갖고 있는 것도 부분 발견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한글』 번역의 새로운 도전들은 매우 반갑다. 우리가 노력하여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한 걸음 더 진보한 대안을 찾아 주었기 때문이다. 또한 현대 독자 중심에서 고민하여 현대의 문체와 문법 등을 대폭 반영하였고, 이를 통해 현대 독자의 성경 가독성과 이해를 높였다. 또한 이번 『새한글』 번역 성경의 출판을 통해서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용어들에 관한 더욱 활발한 논의가 시작되고, 한국어 번역 성경이 발전되는 좋은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한다.

<주제어>(Keywords)

요한복음,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 여자, 절기, 고아.

Gospel of John, the New Korean Translation The New Testament and Psalms, women, feasts, orphans.

<참고문헌>(References)

- 국립국어원편,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 (2022. 4. 7.).
- 권해생, 『요한복음』,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출판국, 2021.
- 권해생, “예수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요 19:25-27)”, 『신약연구』 17:4 (2018), 526-555.
- 김주한, “『새한글성경』 신약성경에 관한 고찰”, 『신약연구』 20/4 (2021), 729-768.
- 김형동, “요한복음의 ‘여자’(γύναι)의 이해와 번역에 관한 소고”, 『성경원문연구』 50 (2022), 123-140.
- 김창락,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신약성서의 번역 특징을 중심으로”, 대한성서공회홈페이지, https://www.bskorea.or.kr/bbs/board.php?bo_table=sachan&wr_id=7, (2022. 04. 10).
- 네펠, 거트 M., “요한복음 2:4의 γύναι 용법에 대한 유진 나이다의 견해”, 김형동 역, 『성경원문연구』 39 (2016), 434-447.
- 배재욱, “요한복음에 나오는 γύναι에 대한 소고 — 예수는 자기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불렀을까?”, 『신약논단』 9/3 (2002), 779-786.
- 보컴, 리처드, 『요한복음 새롭게 보기』, 문우일 역,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6.
- 이두희, “마가복음 번역 해설”, 이두희, 박동현, 민현식,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 번역해설집』, 서울: 대한성서공회, 2021, 66, https://www.bskorea.or.kr/bbs/board.php?bo_table=sachan&wr_id=5 (2022. 4. 7.).
- 조석민, 『이해와 설교를 위한 요한복음』, 고양: 이레서원, 2019.
- 조지윤, “존대법 번역과 성경 번역 접근법”, 『성경원문연구』 25 (2009), 127-148.
- 카슨, D. A., 『요한복음』, 박문재 역, 서울: 솔로몬, 2017.
- 콕스텐베르거, 안드레아스, 『요한복음』, 신지철, 전광규 역,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7.
- Bauckham, R., *The Testimony of the Beloved Disciple: Narrative, History, and Theology in the Gospel of John*,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7.
- Culpepper, R. A., *The Gospel and Letters of John*, Nashville: Abingdon Press, 1998.
- Feeney, D., *Caesar's Calendar: Ancient Time and the Beginnings of Histor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7.
- Liddell, H. G. and Scotts, R., eds., *An Intermediate Greek-English Lexicon*, Oxford: Clarendon Press, 1889.
- Moloney, F. J., *The Gospel of John*, Minnesota: The Liturgical Press, 1998.
- O'Day, G. R., *The Gospel of John*, Nashville: Abingdon Press, 1995.
- Sigismund, M., ““Without Father, without mother, without genealogy”: fatherless in the Old and New Testaments”, S. R. Hübner, D. M. Ratzan, eds., *Growing Up Fatherless in Antiqui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83-102.
- Thompson, M. M., *John*,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15.

<Abstract>

**Suggestions for the New Korean Translation
The New Testament and Psalms (NKT NT&Ps):
Focusing on Particular Expressions in the Gospel of John**

Chang Seon An
(Korean Bible University)

Languages not only serve to facilitate communications between people, but also appear to be social symbolic systems they share within a particular society. In this regards, the publication of the New Korean Translation The New Testament and Psalms (hereafter NKT NT&Ps) plays a crucial role in helping young generations to come to better understanding of the meaning of the Bible. This essay examines particular expressions of the Gospel of John in the NKT NT&Ps while concentrating on some particular terms displaying the Johannine understanding of Jesus, God, and the believers in Jesus.

The publication of the NKT NT&Ps shows the meaningfully continuous efforts to fill the cultural, linguistic, and social gaps between the time of the Gospel of John and that of the contemporaries. In this vein, the essay concentrates on expressions of the NKT NT&Ps displaying and reflecting historical, cultural, and religious contexts in the Gospel. This study examines (1) Jewish feasts like the Dedication; (2) Jesus' distinctive ways to speak with women, 'I am' saying in John, and polite speech; (3) the translation of '고아'; and (4) some expressions demonstrating temporal movements in the narratives of the Gospel of John. Then,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NKT NT&Ps will be appreciated when translators pay more careful attention on the theological structures of the Gospel of John that differ from those of the Synoptic Gospels, and are cognizant of the fact that the NKT NT&Ps leaves modern readers unfilled between two different people, cultures, and regions.